

# 의원 출신 경제부지사 임용 조례 눈총

## 전남도의회 개정안 발의... '자리 쟁기기' 비판 일어

전남도의회가 광역의회 의원을 지낸 인사도 경제부지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 26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환경위원회를 열고 박동주(합평 1·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본회의로 올렸다.

박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제부지사의 자격 기준에 '광역의회 의원으로 1회 이상 임기를 마친 사람'을 포함 시킨 게 골자다.

현행 조례안은 ▲2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할 사람 ▲3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할 사람 ▲선거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할 사람 ▲지방행정과 경제분야에 혁신과 경륜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의회와 의원 조율 및 정부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특별보좌관을 두고 있고 이 자리에 이미 전남도의원 출신이 임명된 상황에서 또 의회 출신 인사를 경제부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감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

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남도의 경제부지사 임용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3급 정부특별보좌관 임용에 따라 기존 정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과 기능을 바꿔

경제, 산업, 투자유치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이 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 중 적임자를 택해 임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 의원들의 경제부지사 자격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은 전형적인 '자리 쟁기기'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인권·평화 자원봉사로...

제8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가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민주·인권·평화 자원봉사로 빛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참석하며 28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은 절차 위반”

## 박선숙의원 주장... 신재민 증인 채택 놓고 논란

### ■ 국감 현장

국회는 26일 정부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의 이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선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됐다.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맹공' = 정무위 소속 의원 절반이 이날부터 해외 국감에 착수, 나머지 10명 의원이 보훈처 국감에 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경위를 추궁했다. 보훈처가 지난달 5일 '고인의 유족이 49세 이전까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오늘 서면심의를 했다'며 안씨의 현충원 안장을 의결한 데 대해 원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서면심의

일에 개과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보훈처는 다음날 의견 접수분까지 포함해 의결했다”며 “절차를 위반하면서 결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어떤 제3의 힘이 강요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증인 채택·낙하산 인사 논란 = 외국인 전용 카지노(세븐럭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사장으로 지난 8월 류화선 전 과주시장이 선임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인 류화선 GKL 사장을 거론, “1차 공모 시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야당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차 공모 시 심사위원이 바뀌면서 류 사장이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영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1차 공모 시 5등으로 탈락한 류 사장이 2차 공모에서 사장이 된 것”이라며 “카지노에 대한 전문성·경력이 전무한 특정한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평가방법까지 바꿨다”고 주

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시장이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대방 의원이 마주 앉았는데 얼굴 뜨겁게 마구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맞박았다.

이에 앞서 문방위에서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문제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 ‘신 전 차관은 몸통이 아니라 깃털’이 라고 했다”며 “10년 전 법에 받은 사람이 깃털이라면 신 전 차관을 불러 몸통을 따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신 전 차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익 의원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지을기자 jpkp@kwangju.co.kr

## 내년 G20·유로존 10國 등 잇단 대선

# 리더십 위기... 세계 경제 더 어둡다

세계 주요국의 대선과 총선 일정이 내년 대거 몰려 있어 세계 경제위기에 해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난국을 헤쳐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권이 선거 승리에 집착해 공조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난 해결의 열쇠를 쥐는 주요 20개국(G20)과 유로존에서만 내년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곳이 10개국에 달한다.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유로존 17개국 중에서는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등 4개국이 새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주요 20개국(G20)에서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멕시코, 터키 등 7개 국가에서도 대선이 열린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11월, 12월에 대선을 치른다. 재정난이 가시화한 스페인은 올해 11월 총선, 내년 3월 대선 일정이 잡혀 있다.

프랑스도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경고를 받아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상황에 직면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 내년 4월부



터 대선과 총선을 잇달아 맞는다.

대선정국에서 국가 리더십이 약화하거나 실종돼 경제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 회복의 열쇠를 쥐는 독일은 정치권 마찰로 그리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 메르켈 정부는 연이은 지방선거 패배와 집권 연정 내부 갈등 때문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향의를 아직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4천4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이 불투명하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한국에서도 주요 경제정책 결정 등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나주혁신도시 토지 분양률 50% 넘어

### 현기환 의원 국감자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토지 분양률이 57.7%로 나타났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분양률이 평균 57.6%로 집계됐다.

전체 10곳의 분양대상 토지 2736만2000㎡ 가운데 1576만2000㎡가 판매됐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분양률이 57.7%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분양대상 토지 787만3000㎡ 가운데 710만㎡가 팔려 가장 높은 90.2%의 분양률을 보인 것에 비해

면 턱없이 못 미친다. 부산 혁신도시도 분양대상 면적 23만5000㎡ 가운데 19만5000㎡가 분양돼 분양률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분양대상 219만9000㎡ 가운데 58만3000㎡로 26.5%만 팔렸고 충북(33%), 경남(39.7%), 제주(41.8%)도 판매율이 낮았다.

한편,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당초 159개였으나 기관통합 등으로 147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청사를 새로 신축할 기관은 120개(27개 기관은 임차청사)다. 이 가운데 현재 95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했으며 30개 기관의 청사가 착공에 들어갔다. /김지을기자 dok2000@

## 靑 “이국철 리스트 소설같은 얘기”

### 측근인사 자체 조사

청와대가 최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이국철 회장의 주장과 관련,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점점 결과, 신빙성이 떨어지며 ‘소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결론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박정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거명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스크린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회장이 제2, 3의 폭로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해 사전 점검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일방적 폭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감경론’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 ‘이 회장이 청와대 모 비서관의 도움으로 2008년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열린 무역진흥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대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풀(Pool)기사와 동영상까지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풀기사와 동영상에 이 회장이 이 대통령과 악수는 했지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강석수 STX 그룹 회장만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인 비서관도 2007년 12월 19일 대선 당일 강남 술집에서 이 회장과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GRAND OPEN** 1주년 기념

# 웨딩·객실 대거할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연모임, 기업행사)

- \* 대형예식장 뷔페식비 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합니다.
- \*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 \*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 \*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예약문의 362-0011, 600-9999**

## 노사조정위원회가 광주지역의 노사갈등과 노사분쟁을 노사공동으로 조정 지원합니다.

노사조정위원회는 광주지역 노사대표단체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제자총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사업장의 노사갈등 및 불규의 사전예방과 사후해결에 노사단체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이 필요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만든 사적조정기구로서 2009년 12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목적**

- ▶ 광주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 노사갈등 및 불규 사전예방 및 사후조정 -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 및 해결방안 강구
  - 노사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상생 노사관계 구현
- ▶ 조정대상
  - 이익분쟁: 임, 단협 관련 조정 - 권리분쟁: 구조조정, 해고 등 노동쟁의의 이익 분야 조정
  - 기타분쟁: 노노갈등, 용역, 하청, 특수고용 등 노동관련 모든 분쟁

**운영 방안**

- ▶ 위원회 구성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제자총협회가 공동 운영
  - 근로자위원 7인, 사용자위원 7인, 전문위원 6인 등 20명 (특별위원은 필요시 위촉, 위원은 노사단체 임직원 및 노동전문가로 구성)
- ▶ 위원회 운영
  - 1차 조정: 노사위원 - 2차 조정: 노·사·전문위원 조정
  - 특별조정: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조정
- ▶ 조정·중재신청
  - 노사 양 당사자의 명의로 노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합니다.
  - 노사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위원 명단에서 노사합의로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한 사람에게 의한 단독 조정도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공적 조정·중재 전이나 실패한 후라도 사적 조정·중재가 가능합니다.
- ▶ 조정·중재 진행 절차
  - 조정 신청 → 조정인 선정 일정 조정 → 조정 중재안 제시 → 수락 여부 결정

**광주노사조정위원회** 광주경제자총협회 KGWANGJU EMPLOYERS FEDERATION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KFTU GWANGJU REGIONAL OFFICE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1-14 (광주경충 내) TEL. 062-654-3425 FAX. 062-654-3429